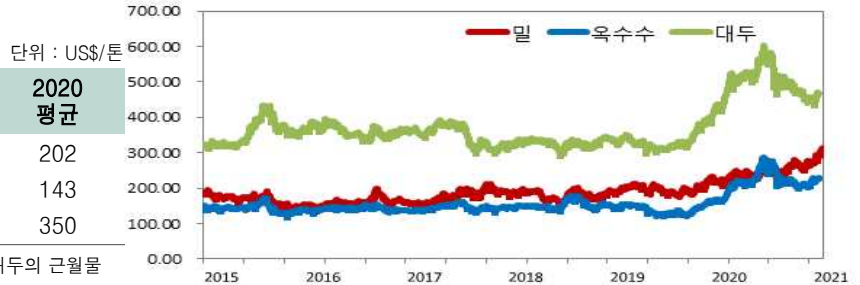


밀 선물가격, 공급에 대한 우려와 수요 증가로 9년 만에 최고치 기록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21.11.23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21.10)	2020 평균
밀	314.52	▲1.2%	274	202
옥수수	228.53	▲0.6%	211	143
대두	467.74	▼0.1%	452	350

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12월, 옥수수 : 12월, 대두 : 1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상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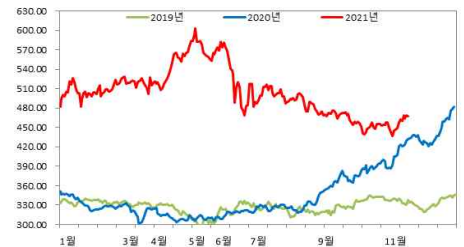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2% 상승했다.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 밀 공급 우려와 세계 바이어들의 수요 증가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미 농무부는 주간 보고서에서 겨울 밀 수확량 등급을 2% 포인트 낮췄다. 폭우로 인해 서부 캐나다의 곡물 수출이 중단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호주에 내린 과도한 비가 수확을 중단시키고 작물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. 호주의 밀 수확량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북반구 주요 수출업체들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6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추수감사절 연휴와 금요일에 12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. 세션 초반 차익실현으로 하락했으나,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옥수수가 밀 시장의 상승을 따라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. 또한 높은 원유 가격도 옥수수를 뒷받침했다. 거래자들은 남미의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. 브라질의 일부 옥수수 지역은 건조하고 아르헨티나에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. 미 농무부는 일요일 기준 미국 옥수수의 95%가 수확되었다고 밝혔다.

대두 선물시장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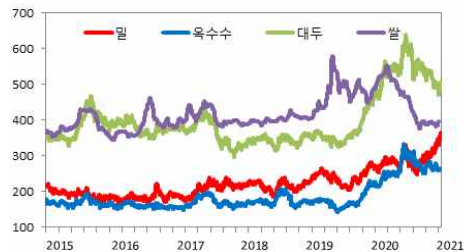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1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스케어포지션을 취하고 전날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다. 거래자들은 남미 대두 지역의 기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. 이번 주 아르헨티나에서는 유익한 비가 내린 반면, 브라질은 평년보다 적은 비가 내렸다. 미 농무부는 현재 미국 대두의 95%가 수확되었다고 밝혔다. 분석가 Thomas Mielke는 아자수, 해바라기, 대두유, 유채씨유 등 4대 식물성 기름의 전 세계 생산량이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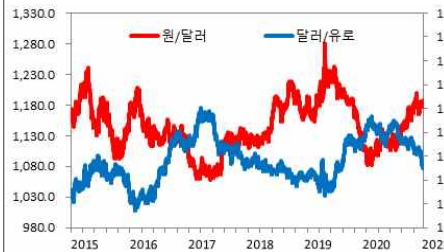
관련동향

- 걸프 대두 수출 프리미엄은 적재 용량 제약으로 인해 견고해졌고, 밀과 옥수수 수출 베이스는 안정적이었음.
- 23일 국제유가는 미국 등 주요 소비국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OPEC+ 증산 계획 재검토 등으로 방출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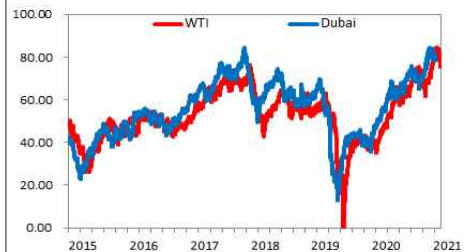
곡물 수출가격 (FOB)



환율



국제유가



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364	▲2.2%	환율	원/달러	1,187.4	▲0.3%
	옥수수	265	▲1.1%		달러/유로	1.1239	▼0.4%
	대두	505	▲0.8%	국제유가	WTI	78.50	▲2.3%
	쌀	396	▼0.3%		Dubai	78.47	-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 2) 기준일은 '21.11.22(수출가격), '21.11.23(환율), '21.11.23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